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

“이 길은 인내 (忍耐) 의 길이다”

나라는 의식이 6,000년 동안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짓이기고, 고통을 가했던 마귀의 주체영입니다. 그런 고로 마귀의 세력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뎌야 없었던들 그 마귀를 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인내(忍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겼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냐? 라는 비아냥의 풍조가 세간에 회자膾炙 되곤 했습니다.

내(忍耐)입니다. 인내(忍耐)속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긴자가 인내로써 완성자가 된 고로 여러분들도 인내로써 완성이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덕쟁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로써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기만 참으면 구원은 구세주가 해 주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안되어도 좋으니 하려고 노력만 하세요.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자는 기어이 이기고, 진리가 인내이고, 생명, 모두가 인

작은 동기

한 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회사에서 오후 네 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했다. 퇴근하면서 걸어서 집으로 갔다. 어느 날 밤엔 달이 너무도 밝았기 때문에 그는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지름길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빙 둘러 가는 것보다 10분은 단축할 수 있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별다른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 없이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쪽 길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달빛이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낮에 묘지 인부들이 새로운 무덤을 만들기 위해 길 중간에 구덩이를 파놓은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발을 헛디뎌 곧바로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당황한 그는 구덩이 밖으로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벽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어떤 노력을 해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뿐이었다. 한참을 시도하던 그는 결국 아침에 누군가 와서 꺼내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구덩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얼핏 잠이 들었다. 그때 어떤 술 취한 남자가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에 그는 잠이 깨었다. 그 술 취한 남자 역시 자기가 무덤구덩이 안에 떨어진 걸 알고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것이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신사는 그 술 취

한 남자의 발목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시오 아무리 나가려고 해봐 야 소용이 없소”

그 한마디에, 술에 취한 남자는 “오아 ~ 약”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낄듯이 단숨에 구덩이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촛살 같이 달아나 버렸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작은 동기만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쫓기는 도둑은 2m가 넘는 담장도 훌쩍 뛰어넘고, 5m가 넘는 난간도 훌쩍 뛰어넘고 한다. 평소에는 어렵도 없는 일인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다.

같은 예로 월남전에 참가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며 옆에서 전우들이 총에 맞아 쓰러진다. 다급한 나머지 안전지대로 뛰어서 피하는데, 급히 뛰다 보니 차량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바리케이드에 학대가 걸린 줄도 모르고 막 내 달렸다고 한다.

평소 같으면 그 무거운 바리케이드를 끌고 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차량 밑에 깔린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승용차를 번쩍 들어 올려서 아이를 꺼냈다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다.

일상에서 가끔, 자신이 태만(怠慢)하다고 생각될 때는 일부러라도 자신을 위기상황(危機狀況)으로 몰아보라.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현동의 동학(東學) 이야기 2



천도교 중앙대교당

목차

동학(東學)이 종교냐 아니냐에 대한 필자의 의견

질문 1: 서학인 예수교를 믿으면 죽은 후 천국에 가는데 동학인 천도교(동학이 곧 천도교)를 믿으면 사후에 천국 가느냐?

질문 2: 동학을 심학心學이라고도 한데데 마음 공부(동학수련)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 3: 동학이 그렇게 훌륭한 종교(?)라면 왜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의 교세가 침체되어 변방의 종교로 추락했는가?

질문 4: 인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의 민족 종교인 동학(천도교)이 세계화 될 가능성은?

질문 5: 동학 창도자 수운 선생이 동학과 서학은 일부는 같은데 일부는 다른 것이 이치理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요약해 주세요.

질문 6: 왜 이 시대에 동학입니까?

지난호에 이어서

질문 2: 동학을 심학心學이라고도 한데데 마음공부(동학 수련)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심학의 어원은 유교 경전의 하나인 대학에서도 심성구자心誠求之(마음을 다하면 꿈은 이루어진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양명학에서도 심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므로 마음을 중시하는 철인들의 깊은 사고는 수운 선생 이전부터 동서양의 철인들이 자주 거론했었습니다.

최근에 과학의 발전으로 생각만 해도 즉 마음가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고 로봇 팔을 움직이는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rain computer interface) 기술까지 개발되었는데 수운 선생은 그의 저서 논학문에서 이미 이를 설파했습니다. 즉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수기심守其心 정기기正其氣하고 술기성率其性 수기교受其教하면 화출어化出於 자연自然 지중야之中也). 그리고 천도교의 3세 교조 의암 손병희 선생의 범설인 무체법경無體法經에는 『마음이 흰 것을 구하고자 하면 흰 것으로 보이고(이백육구자즉 이백시지 以白慾求之則 以白示之) 붉은 것을 구하면 붉은 것으로 보이고(이홍구자즉 이홍시지 以紅求之則 以紅示之) 푸른 것을 구하면 푸른 것으로 보이고(이청구자즉 이

청시지 以靑求之則 以靑示之)』 이처럼 생각만 해도 자연히 이루어지려면 동학수련의 큰 경지에 도달해야 가능할 터. 그러한 경지는 『성심신 삼단의 합이시지 분이지지(性心身 三端의 습以示之 分以示之)』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AI 기술이 태동하기 전에 이미 동학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동학 천도교의 수련은 처음에는 수련 지도자(현재 천도교 선도사 등)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동학의 축문(주문)21자를 외우면(묵송 또는 현송) 강령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효령이 있기 때문에 31운동 당시 천도교도가 300만을 자랑할 정도였으며 31운동의 자금을 제공하는 등 31운동 전반을 천도교가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련을 하는 교인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교세가 미약한 이유를 필자는 아래 [질문 3]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질문 3: 천도교가 그렇게 훌륭한 종교라면 왜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의 교세가 침체되어 변방의 종교로 추락했는가?

답변 1: 내부 분열 및 세속화된 지도자들의 무능

동학 천도교는 한 시절 한반도에서 애국종교로 이름을 날렸지요.

일제 강점기 시절 300만 이상의 신도를 거느리며 교육사업도 하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웃 종교를 선도하자 급기야는 경술국치(1910.8.29) 이후 초대 조선총독이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1852-1919)가 의암 손병희 선생을 불러 천도교의 성미誠米제도가 현행법에 어긋나고 천도교 경전의 일본 비난 문구(가사8면 중 안심가)를 없애라고 하소하듯이 동학농민혁명(1894)과 3.1운동(1919) 등을 주도하였고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하면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영도한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였던 손병희 선생이 옥고 獄苦의 후유증으로 순국하신 후 일제의 농간으로 내부 분열(박인호 선생 계열의 구파와 친일파 최○ 계열의 신파로 분열)과 1938년 무인戊寅년에 박인호 선생의 주도하에 시도된 무인멸왜戊寅滅倭기도가 발각되어 많은 천도교 지도자가 검거된 사건 등등이 있었고 그보다 앞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최○ 교령이 친일파로 지목되었고 당시 신여성으로 이름을 날렸던 나○○ 여성과의 프랑스 파리에서의 스캔들로 천도교인들을 실망시킨 사건 등등과 함께 해방 이후 북한에 있던 수많은 교인들이 공산주의

에 항거한 사건(1948년 3.1재현 운동)이 실패하여 북한의 천도교 지도부가 숙청 분열되었고 6.25 전쟁으로 인해 교세가 침체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그 명맥이 이어 왔으나 교단의 무능과 더불어 지도자들(교령 출신 2명, 한 명은 교령 재직 중에 1997년에 월북)이 월북하는 등 또 교령 자리를 놓고 비민주적 간접선출 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천도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믿는 종교냐! 천도교는 왜 북한에서 대우받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의 풍조가 세간에 회자膾炙 되곤 했습니다.

산업자본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팽창으로 기독교화 또는 타종교에 흡수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입니다.

답변 2: 급변하는 시대에 낙오

제2세 교조 해월 최시형 선생은 아주 현실적인데 『용시용활용時用活』을 주창하면서 시대에 맞게끔 적응하라고 했으며 자신의 이름도 경상에서 시형時亨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후학들은 오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결과 지금의 천도교로 추락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군사정권시절 많은 종교인들이 항거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습니다만 천도교 지도자들이 항거한 사례가 있나요? 또 산업화와 더불어 종교재단이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육성했나? 천도교는 내부 분열만 일삼아 왔고 교령 자리가 무슨 벼슬하는 것처럼 서로 차지하려고 과도한 경쟁을 해오던 중 급기야는 현직 교령이 월북하는 등등.

동학교리와 유사점이 있으나 독특한 교리를 지닌 민족종교인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종빈(1891-1943) 선생은 진짜 용시용활한 성인인데 그 후학들은 원광대학을 설립하여 교역자로 배출하고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작은집적인 원불교가 청출어람靑出於藍으로 큰집을 밀어낸 현실입니다.

각 종교마다 정규 과정의 대학에서 최소 4년 이상의 교육 수료 후 평생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한 교역자를 양성하여 중단을 지키고 교인들을 위로하며 결속하는 시스템system화 되어 있으나, 천도교에는 없습니다.

2면에 계속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긴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련 설교를 5면, 6면, 7면, 8면 전격 게재》

— TV방영 총4회 중 3회분 영문번역 —

설교는 하지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우리 교포들이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쓴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꺾결 웃으면서 “나는 그러한 설교 대본을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단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한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한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두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두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세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세 시간을 말하고 다섯 시간 말하라고 하면 다섯 시간도 말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유명한 이제 통일교 목사 문선명님도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 또 조용기 목사도 역시 설교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대본을 읽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더러 목사라고 합니다. (2003. 6. 9.)*



▶ <https://www.youtube.com/@HydongKim-i2b>

인류는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예배 안내 (032) 343-9981

평일 1부 예배: 새벽 5시~6시,

2부 대예배: 오전 9시~10시,

3부 예배: 오후 2시~3시,

4부 예배: 오후 7시~8시

토요일: 평일 예배 3부까지 동일,

4부 예배: 오후 5시~6시

일요일 대예배: 오후 1시~3시